

편협회보발행 및 출판사업

1) 편집인협회보 발행

협회보 창간호는 편협 창립 4개월 후인 1957년 8월 13일 발행됐다. 편협이 협회보를 발간한 것은 회원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고, 협회의 활동 및 사업을 회원들과 유관언론단체에 전달하는 매체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창간호는 타블로이드판 8면으로 제호는 '신문편집인협회보'로 발행인은 이관구(李寬求) 초대회장으로 50부를 발행했다.

협회보 창간실무는 본회 재무였던 최병우(崔秉宇) 당시 코리아타임스 편집국장 과 회보제작담당 김종환(金宗煥) 간사 두 사람이었다. 초창기의 회보 편집실은 편협이 사무실로 사용했던 서울 중구 북창동 110 중앙공보관 2층 501호실 작은 골방이었다. 회보인쇄는 서울 북아현동에 있는 일반 인쇄소에서 했다.

회보는 월간 4면이 기준 면수였다. 창간호가 8면으로 증면된 것은 제1회 신문주간 관계 자료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였다. 그 후 필요에 따라 8면으로 몇 차례 증면이 되기도 했다. 또 지금의 '편집인협회보' 제호를 쓰기 시작한 것은 제35호(1969년 3월 15일)부터였다. 타블로이드 4면 체제는 제253호(1991년 1월 31일)까지 유지됐다. 대판형 체제로 바뀐 것은 제254호(1991년 3월 15일)부터이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판형만 커졌지 편집형태는 세로쓰기였다. 가로쓰기는 제307호(1999

년 3월 22일)부터 전 지면에 도입됐다. 그러나 국한문 혼용은 그대로였으며, 인쇄도 흑백이었다. 1994년 제6회 국제환경저널리스트대회가 열렸을 때 등 일부 컬러로 제작되기도 했다. ‘편집인협회보’가 지금과 같이 상시 컬러로 제작된 것은 제324호(2002년 3월 8일)부터였다.

편집방향은 국내언론계 동향과 해외언론계 동향을 중시하면서 한국 언론의 발전에 기여하는 각도에서 다루고 있으며, 창간 이래 기록성과 자료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편협은 1999년 9월부터 퇴직 원로언론인들에게 협회보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2)출판사업

(1) 매스컴관계 세미나 주제논문 및 결과물 발간

편협이 출판 사업으로 처음 발간한 것은 매스컴 관계 세미나 주제논문 제1집이다. “자유언론의 사명”이라는 제호로 발간된 제1집은 1965년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온양 관광호텔에서 열린 제1회 매스컴 관계 세미나에서 다루어진 토론내용을 묶은 것이다.(1965년 12월 26일. 국판). 주요내용은 △제1분과위원회-신문, 라디오, TV 등 매스컴의 시대적 사명과 그 책임 △제2분과위원회-정부와 신문 △제3분과위원회-자유언론의 수호와 그 향상을 위한 문제점 등이다

그로부터 해마다 열리는 매스컴관계세미나 및 편집보도국장세미나, 각 부장단 세미나, 한일편집간부세미나, 논설해설위원세미나 등의 주제논문과 토론내용을 수록하여, 결과물로 남기고 있다.

(2) 보도용어집 발간

① 외래어표기집 발간

외래어표기 중심으로 된 보도용어집은 편협 산하 분과위원회 보도용어통일심의위원

회 실무 소위원회에서 심의사정하여 결정한 외래어 표기 통일안을 엮은 것이다.

제1집은 각국명, 수도명, 주요지명, 일반용어 등 1,900여 용어를 수록하여 1977년 3월 4·6판으로 발간했다. 제2집은 세계인명 2,700여, 일반용어 1,700여 용어를 수록하여 78년 3월 발간했다. 제3집은 새로이 신문지면에 오르는 인물명, 지명, 일반 외래어 등을 수록하여 81년 5월 발간했다. 제4집은 제3집까지에서 빠뜨린 세계 각국어 표기가이드를 수록하여 83년 12월에 발간했다. 제5집은 제4집 발행 후 1년간 심의 결정한 자료를 정리해서 제4집과 합본한 것이다. 제5집에는 전집에 빠뜨린 세계 각국어 표기가이드 중 프랑스·이탈리아·노르웨이·터키·러시아어까지 합쳐서 모두 13개 국어의 표기가이드를 수록, 84년 12월에 발간했다.

② 외래어편 발간

외래어편은 보도용어집 제1·2·3집에 수록된 것을 합본하여 82년 12월 단일본(국판)으로 발간했다.

③ 외래어표기편람 발간

편협은 85년 말 정부가 새로운 표기법 개정안을 확정, 발표함에 따라 86년 1월 31일 제34회 정기총회에서 정부의 개정안을 따르기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펴낸 보도용어집들을 총망라, 증보하는 한편, 그 표기법도 정부 확정안과 일치하도록 수정해서 다시 수록했으며, 86년 10월 국판 전508면으로 발간했다.

④ 외래어사전 편찬 발간

편협은 1994년 3월 국판 사이즈 1천4백54페이지에 총 2만9천7백여 개 용어를 수록한 '외래어사전'을 발간했다. 이 사전은 인명, 지명, 학술용어, 일반용어 등 신문·방송·통신과 각급학교 교과서에서 쓰이고 있는 외래어를 집대성한 것으로, 편협 보도용어통일심의위원회(위원장 李民翹)가 소위원회를 구성해 2년 6개월 동안 각고의 작업 끝에 완성한 것이다.

이 사전은 새 표기법에 따른 한글표기, 로마자 또는 한자원어, 간결한 해설 순으로 수록돼 있어 외래어 표기 통일 전범(典範)으로서 뿐 아니라 참고문헌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 만든 것이 특징이다. 또 1992년 11월 27일 고시된 동구어(東歐語) 표기법까지 반영한 첫 사전이기도 했다. 예를 들면 중전 폴란드 인명표기 '블라디슬라프'는 '브와디스와프'로, 헝가리 인명 '아틸라'는 '어틸러'로 바르게 실었다.

또 동서양 각국의 현대인명을 풍부하게 수록했는데 일반사전과는 달리 폴네임을 모두 한글로 표기한 것도 특색이었다. 뿐만 아니라 편협이 발의해 구성된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에서 공식 사정(査定)한 히프(hip), 카피(copy), 워크숍(workshop), 하이테크(hightech) 등 널리 쓰이면서도 공식표기가 결정돼 있지 않은 외래어들도 처음으로 수록했다.

이밖에 외래어표기법 전문과 각종 약어, 각국명과 수도명, 미국의 주명(州名), 일본의 현명(縣名), 미국의 역대 정부통령 명단 등을 실었고, 3천9백여 용어에 이르는 일본인, 중국인 성씨를 원음과 한자로 수록, 자료로서의 가치를 높였다. 권말에는 로마자 찾아보기를 실었다.

편찬 실무는 외래어사전 편찬 소위 소속 김영환(金永煥) 서울신문 교열부장과 정복수(鄭福洙) 스포츠서울 편집부국장이 일반용어를 맡았으며, 방순용(方舜用) 중앙일보 교열부장이 세계역사 인명, 김충수(金忠洙) 조선일보 교열부장이 중국현대인명, 박창원(朴昌遠) 일간스포츠 교열부장이 일본현대인명, 이민우(李民羽) 연합통신 논설위원이 세계시사인명과 지명을 각각 담당했다.

⑤올림픽, 월드컵 선수명 표기집 발간

편협은 88서울 올림픽 때 처음으로 선수명 표기집을 발간한 이후 92 바르셀로나, 96 애틀란타, 2000 시드니 올림픽과 2002 월드컵 등 대규모 국제대회때마다 선수명 표기집을 펴내 외국어 표기 통일을 위해 노력했다.

(3) 편집인협회보 축쇄판 발간

편집인협회보 창간호(1957.8.13)부터 150호(81.3.31)까지를 묶은 회보축쇄판(타블로이드판)을 1981년 8월 5일 발간했다.

이 축쇄판은 관훈클럽 신영연구기금의 지원으로 500부를 발행, 회원과 언론단체, 관계기관 등에 배포했다.

(4) 「편협10년」 발간

편협 창립 10주년을 맞아 1967년 4월 발간했다. 이 책은 △편협의 창립과 창립정신 △편협과 각 언론단체 △편협과 언론자유 △편협의 대내외활동 등 4부로 나뉘어 자료중심으로 기술하고 부록을 곁들였다. 국판 전98면.

(5) 편협 30년사 발간

편협은 창립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1987년 10월 「신문편집인협회 30년사」를 발간했다. 편협의 창립과정에서부터 언론자유 쟁취를 위한 다양한 활동 등을 치밀하게 담았으며, 특히 편협이 발표한 각종 성명서와 관계기관에 보낸 공한 건의서 등을 꼼꼼히 수록, 사료로서의 가치를 평가받고 있다. 4·6배판에 950쪽이었으며, 주요 언론관계에 배포하는 한편 권당 2만원에 일반판매도 했다.

(6) 편협 연차보고서 발간

편협은 2001년부터 방일영문화재단의 지원으로 「편협 연차보고서」를 매해 발간하고 있다. 연차보고서는 한 해 동안 주최한 각종 세미나와 금요조찬의 주제발표 및 토론 내용을 비롯해, 각종 성명서, 신문윤리 강령, 역대 편협 임원 및 간부 명단, 편협 연혁순으로 엮여져있다.

연차보고서는 편협 회원들을 비롯해 각 언론사 및 언론단체, 대학 관련학과, 전국 도서관 등에 배포하고 있다.